KRIHS POLICY BRIEF
국토정책 Brief
제 362 호 2012. 2. 6

연령대별 · 권역별 수도권 전출 · 입 인구 동향과 시사점

이동우(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장)

- 지난 1월 3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순유입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8,450명) 기록
  -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와 20대는 전입초과, 나머지 1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은 모두 전출초과로 나타남
  - 5+2 광역경제권별로 보면, 동남권과 대경권은 수도권으로 전입초과, 나머지 충청권, 호남권, 강원도, 제주도는 수도권에서 전출초과됨

- 수도권 순유입인구수가 감소한 2002~2011년의 경우, 감소된 순유입인구수의 62.5%는 전입인구수 감소효과, 37.5%는 전출인구수 증가효과 때문임
  - 9년 간 전입인구수는 약 15만 명 감소, 전출인구수는 약 9만 명이 증가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주로 전입인구수의 감소가, 30대 이상은 주로 전출인구수의 증가가 수도권 순유입인구수 감소로 연결됨
  - 2007년까지는 호남권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견인하였으나, 2011년 현재는 동남권과 대경권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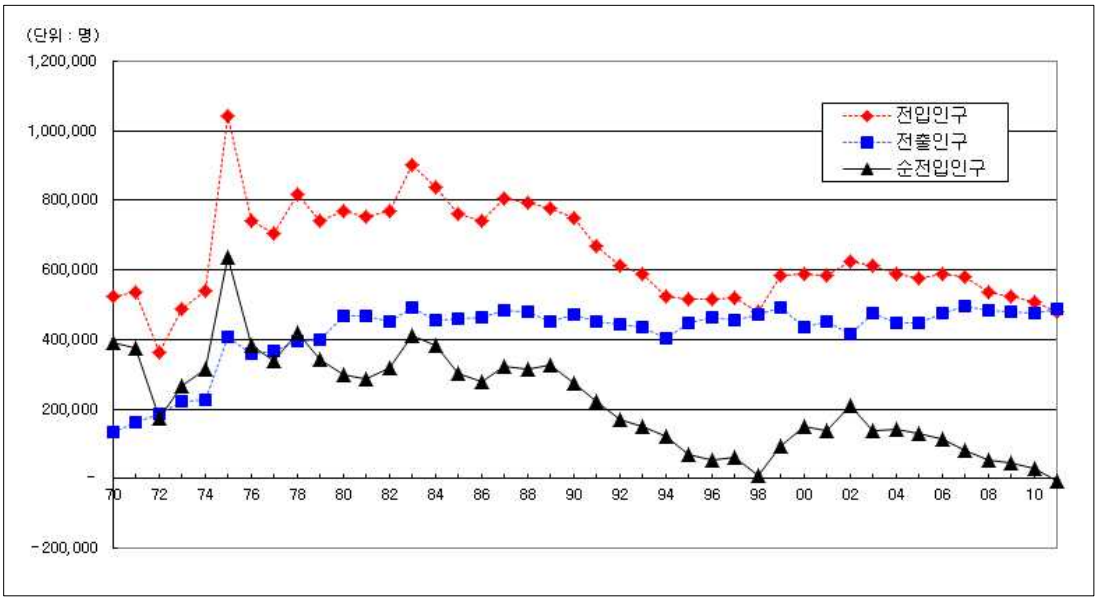
| 정 | 책 | 적 | 시 | 사 | 점 |

1. 수도권 인구가 전입초과에서 전출초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수도권인구 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구집중 억제책 추진 필요
2.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특히 20대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지방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함
3.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대경권의 인구 전출요인을 파악하고, 전출인구의 권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역정책 필요
4. 지난 1983년과 1997년에 통계청에서 시행한 바 있는 '인구이동특별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수도권 전출 · 입 인구의 이동사유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1. 수도권 전출 · 입 인구 장기추이 분석

- 수도권 전입인구수에서 전출인구수를 뺀 순유입인구수는 1975년의 64만 명을 피크로 장기적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8~2002년 일시적 반등 이후 다시 10년째 감소 중
  -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의 9천여 명을 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21만 명이 순유입함
  - 그러나 2002년을 피크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전입인구수보다 전출인구수가 더 많은 -8,450명 기록

[그림 1] 수도권 전출 · 입 인구 장기추이



- 최근의 수도권 순유입인구수 감소는 전출인구수 증가보다 전입인구수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전입인구수는 2002년 63만 명에서 2011년 48만 명으로 9년간 약 15만 명 감소
  - 반면에 전출인구수는 같은 기간 42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9만 명 증가에 그침

[표 1] 연도별 수도권 전입 · 전출 인구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입(A)	625,435	610,572	588,522	574,521	586,440	578,530	536,187	525,000	507,549	480,485
전출(B)	415,844	473,668	448,186	445,712	474,740	495,592	484,165	481,013	476,523	488,935
순유입(A-B)	209,591	136,904	140,336	128,809	111,700	82,938	52,022	43,987	31,026	-8,450

2. 연령대별 수도권 전출 · 입 인구 동향 분석

10세 미만 연령대

- 전입인구수와 전출인구수가 동반 감소하고 있으나, 전자의 감소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체로 2007년부터 전출인구수가 전입인구수를 초과하기 시작함
- 2011년의 전입인구수는 3만 9,878명, 전출인구수는 4만 8,147명으로 총 8,269명이 수도권에서 전출초과된 것으로 집계됨

[표 2] 연도별 수도권 전입 · 전출 인구수(10세 미만)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입(A)	87,704	73,306	72,427	62,036	56,994	52,023	48,391	45,382	42,900	39,878
전출(B)	68,322	77,089	60,816	57,579	56,650	54,710	51,483	49,527	47,802	48,147
순유입(A−B)	19,382	−3,783	11,611	4,457	344	−2,687	−3,092	−4,145	−4,902	−8,269

10~19세 연령대

- 2011년 현재까지 전입인구수가 전출인구수보다 많은 전입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나 전입인구수의 감소 및 전출인구수의 증가로 그 차이는 계속 축소되고 있음
- 2011년의 전입인구수는 4만 5,797명, 전출인구수는 4만 4,742명으로서 수도권 순유입인구수는 1,055명에 불과함

[표 3] 연도별 수도권 전입 · 전출 인구수(10~19세)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입(A)	63,377	54,912	55,363	49,521	48,857	48,163	47,137	47,139	46,859	45,797
전출(B)	36,484	42,228	37,544	34,694	36,727	39,759	38,938	39,371	40,543	44,742
순유입(A−B)	26,893	12,684	17,819	14,827	12,130	8,404	8,199	7,768	6,316	1,055

20~29세 연령대

- 가장 활발하게 이동하는 연령대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수도권 전입 · 전출인구수가 2~4배가량 많음
- 전입인구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순유입인구수도 감소추세에 있으나,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전출인구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순유입인구수의 감소효과 상쇄
- 2010년 한해에만 총 4만 3,351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하는 등 여전히 수도권 인구집중을 견인하고 있음

[표 4] 연도별 수도권 전입 · 전출 인구수(20~29세)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입(A)	237,866	226,120	210,300	211,643	212,100	206,879	185,048	171,978	169,638	156,625
전출(B)	119,619	124,009	126,224	121,583	127,806	131,698	125,611	119,434	115,937	113,274
순유입(A-B)	118,247	102,111	84,076	90,060	84,294	75,181	59,437	52,544	53,701	43,351

30~39세 연령대

- 전입인구수는 감소추세를, 전출인구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8년부터 전입인구수보다 전출인구수가 더 많은 전출초과 현상 지속
- 2011년의 전입인구수는 9만 8,037명, 전출인구수는 11만 58명으로서 총 1만 2,021명이 전출초과된 것으로 집계됨

[표 5] 연도별 수도권 전입 · 전출 인구수(30~39세)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입(A)	113,659	118,647	114,984	113,226	115,659	112,225	104,965	103,785	103,334	98,037
전출(B)	89,964	106,461	101,610	103,386	108,811	110,409	107,141	106,527	109,104	110,058
순유입(A-B)	23,695	12,186	13,374	9,840	6,848	1,816	-2,176	-2,742	-5,770	-12,021

40~49세 연령대

- 전입인구수는 대체로 일정하나, 전출인구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7년 이후 전입인구수보다 전출인구수가 더 많은 전출초과 현상 지속
- 2011년의 전입인구수는 5만 4,945명, 전출인구수는 6만 7,826명으로서 총 1만 2,881명이 전출초과된 것으로 집계됨

[표 6] 연도별 수도권 전입 · 전출 인구수(40~49세)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입(A)	54,572	60,152	60,247	59,520	62,113	61,431	59,506	60,945	57,935	54,945
전출(B)	44,228	55,170	54,650	55,637	60,387	62,898	64,376	64,770	65,256	67,826
순유입(A-B)	10,344	4,982	5,597	3,883	1,726	-1,467	-4,870	-3,825	-7,321	-12,881

50~59세 연령대

-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전입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출인구수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2007년 이후 전입인구수보다 전출인구수가 더 많은 전출초과 현상 지속
- 2011년의 경우 전입인구수는 3만 9,945명, 전출인구수는 5만 1,605명으로서 총 1만 1,660명이 전출초과된 것으로 집계됨

[표 7] 연도별 수도권 전입 · 전출 인구수(50~59세)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입(A)	26,091	28,253	29,262	30,876	35,451	37,793	38,649	41,046	40,072	39,945
전출(B)	22,610	26,494	27,840	30,835	35,338	38,962	42,589	44,667	46,323	51,605
순유입(A-B)	3,481	1,759	1,422	41	113	-1,169	-3,940	-3,621	-6,251	-11,660

60세 이상 연령대

- 전입인구수는 대체로 일정하나 전출인구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전입인구수보다 전출인구수가 더 많은 전출초과 현상 지속

■ 2011년의 전입인구수는 4만 5,258명, 전출인구수는 5만 3,283명으로서 총 8,025명이 전출초과된 것으로 집계됨

[표 8] 연도별 수도권 전입 · 전출 인구수(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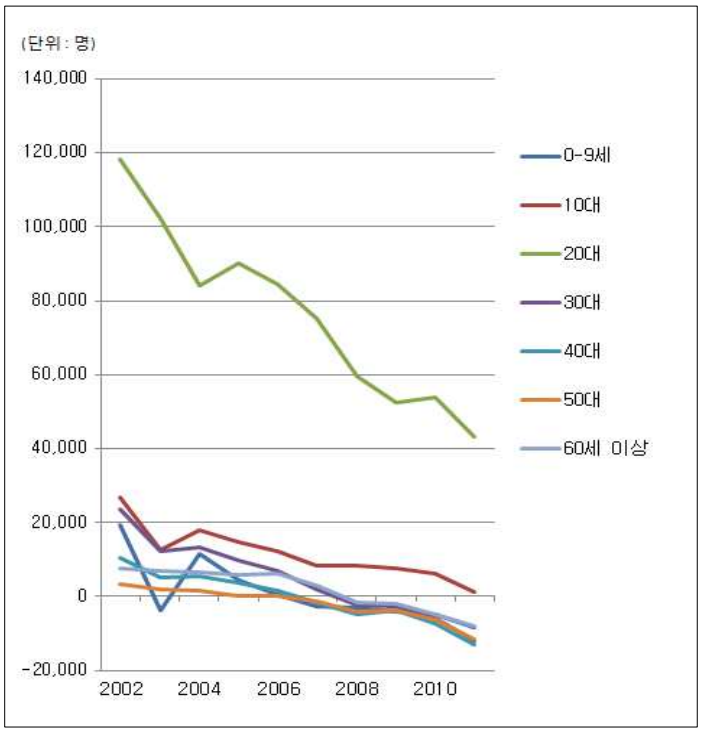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입(A)	42,166	49,182	45,939	47,699	55,266	60,016	52,491	54,725	46,811	45,258
전출(B)	34,617	42,217	39,502	41,998	49,021	57,156	54,027	56,717	51,558	53,283
순유입(A-B)	7,549	6,965	6,437	5,701	6,245	2,860	-1,536	-1,992	-4,747	-8,025

연령대별 분석결과의 요약

■ 10대와 20대를 제외한 연령대는 이미 2007년, 또는 2008년을 경계로 수도권 순유입인구수가 정(正)에서 부(負)로 전환됨. 즉, 더 이상 수도권 인구집중의 요인이 아님

■ 최근의 수도권 인구집중은 주로 20대 때문임. 20대의 수도권 순유입인구수는 2002년 약 12만 명에서 2005년 9만여 명, 2011년 4만 3천여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음

[그림 2] 연령대별 수도권 순유입인구수 추이



■ 20대 이하는 주로 전입인구수의 감소가, 30대 이상은 주로 전출인구수의 증가가 수도권 순유입인구수 감소로 연결됨

- 그러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 수도권 인구는 2,384만 명으로서 이미 전국인구(4,858만 명)의 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의 지역 간 이동에 의하여 수도권 인구가 8천 명 정도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증가 및 외국인 유입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인구비중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음

> ※ 예를 들어 2002.1.1~2010.12.31의 9년 간 수도권 주민등록인구수는 248만 5천 명이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의 주민등록인구수는 같은 기간 9천 명 증가에 그치고 있음. 동 기간 동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인구 93만 7천 명이 이동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수도권 증가인구는 154만 8천 명, 비수도권의 증가인구는 94만 6천 명이 됨. 양자의 차이인 60만 2천 명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6만 7천 명이 되는데, 이는 사회적 이동이 아닌 자연증가 등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매년 약 6만 7천 명 더 증가함을 의미함.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증가가 균등해지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매년 약 3만 4천 명이 순이동하여야 함을 시사

- 따라서 수도권 인구안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기존 분산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전입 억제를 위한 적극적 지역정책 추진이 필요

■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

- 첫째, 수도권 인구집중을 견인하고 있는 20대 청년층에게 시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20대가 선호하는 일자리를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함
- 둘째, 권역별로는 특히 동남권과 대경권의 인구 전출요인을 파악하고, 전출 희망인구의 권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역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 셋째, 수도권 전출 · 입 인구의 이동사유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1983년과 1997년에 통계청에서 수행한 바 있는 '인구이동특별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사회 ·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 간 인구이동의 사유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 분명함

국토연구원 지역연구본부 이동우 본부장(dwlee@krihs.re.kr, 031-380-0198)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양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화 031-380-0114 팩스 031-380-0470 홈페이지 www.krihs.re.kr

수록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호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KRIHS